

FA

국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FA(Fumaric Acid)는 대농유화의 자체 기술개발로 85년부터 생산되어 전량 수입대체를 이루었다.

FA는 크게 공업용과 식품용으로 구분되어 생산중이며 국내생산 초기에는 총 수요가 900톤 정도로 극히 미미하였으나 지난 10년간 꾸준한 수요개발로 94년 약 4000톤의 수요를 보였다.

시장현황

국내 생산능력은 대농유화가 6000톤, 애경유화가 1500톤으로서 총 7500톤 규모이다.

FA 수요현황(용도별)				(단위 : M/T)
구 분	1991	1992	1993	1994
공 업 용	2,000	2,300	1,900	2,700
식 품 용	800	1,100	1,200	950
합 계	2,800	3,400	3,100	3,650

85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대농유화는 공업용 및 식품용을 모두 시판중이며 유럽 및 동남아시아시장으로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93년부터 생산중인 애경유화는 현재 공업용 내수용으로만 판매중이다.

공업용의 주용도로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이며 알키드수지 및 목공용

UV도료 등에도 사용중이다. 수지 제조시 무수말레인산, 무수프탈산 대신 사용시에는 내열성,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후성 등의 품질개선이 가능하다.

식품용은 별도의 식품허가를 득해 판매하며, 산미료, 식품보존제, 사료첨가제 등에 사용된다.

94년 공업용과 식품용의 시장분포는 공업용이 70%, 식품용이 30%정도이다.

전 망

국내생산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이룩한 FA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나 성장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공업용은 세계 선진국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의 판매가 약간 위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부 선진국에 국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중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식품용은 세계적인 추세가 합성원료쪽에서 천연원료쪽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어 과거의 고속성장에서 성장세가 서서히 둔화될 전망이다.